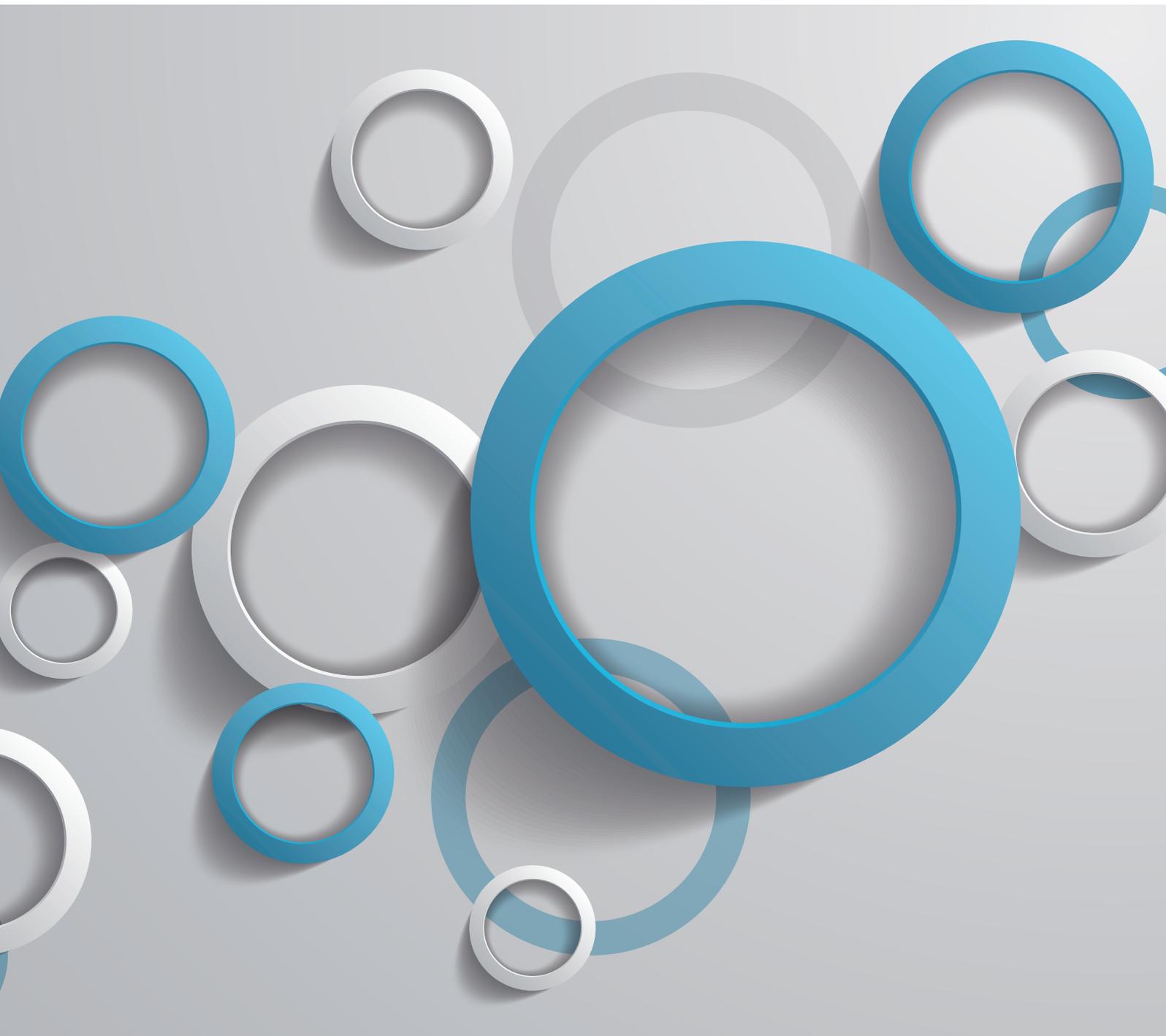


격주한류리포트
글로벌 한류 동향

Global Hallyu Issue 2016

115호



CONTENTS_

Hallyu Weekly Point

03 2주간 한류 이슈 요약

Hallyu Special

06 한류산업 Pick

09 한류스타 Pick

12 한류예술 Pick

Inside Hallyu

14 한류-산업

15 한류-관광

17 한류-문화

Global Hallyu

19 아시아

22 미주

24 유럽

격주 한류리포트
글로벌한류동향

2016년 6월 115호

-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 발행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발행인 김덕중 사무국장
- 작성·감수 남상현 팀장, 김아영 연구원, 류설리 연구원
- 문의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
Tel. 02.3153.1786 Email. ahyoung@kofice.or.kr

Hallyu Weekly Point_

115차 글로벌한류동향 요약

- 이번 동향에서는 아시아·미주·유럽 등 총 9개국에서 일어난 최근 2주간의 한류 소식을 다뤘다. 핵심 한류 이슈로 중국의 외국방송 판권 규제 강화, 서울국제도서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 한류스페셜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식품 부문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뉴욕 KCON 소식에 이어 JYJ 멤버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에 따른 파장, EXO 무단 이탈로 도마 위에 올랐던 크리스, 루한, 타오에 대한 법적 대응, 김윤철 작가의 콜라이드 국제상 수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 중동·남미에 파견된 한류마케터, 창원시 'SM복합문화타운', 한류 문화와 창조경제 취재차 방한한 중국 언론사 소식과 더불어 우봉 이매방 선생의 유작 공연, 러시아의 한국식 차문화 모임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확산된 한류의 면면을 주목할 만하다.

■ 중국 외국방송 판권 규제 강화, 높아지는 한류 수출 문턱 vs 한류콘텐츠 위기 아니다^(16.6.16)

- 중국이 또 한 번 외국 방송콘텐츠 규제에 전격적으로 나섬. 해외 드라마 사전심사제에 이어 해외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는 중국 전역의 위성방송국은 방영 2개월 전 각 지방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16년 7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위성방송사들은 황금시간대(오후 7시 30분~10시 30분)에 외국 판권을 사들인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 더불어 중국 방송사와 외국기관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을 주 제작자로 기용해 만든 콘텐츠 등 중국이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그램까지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힘
- 지방 위성TV에 한정된 본 규제가 향후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부문까지 확장될 수 있어 위협적일 수 있다(한국경제, '16.6.24)는 의견과 함께 중국 자본이 1대 주주인



제작사들은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한류콘텐츠의 위기는 아니라는 견해(스포츠월드, '16.6.22)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

-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국내 제작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은 분명. 그러나 중국 내 높은 한류 콘텐츠 수요와 함께 대부분의 인기 콘텐츠들이 중국 방송 채널보다 유쿠, 아이치이 등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제휴해 '우회진출' 형식을 띠고 있어 본 규제를 한류의 위기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

■ 국내 최대 규모 책잔치,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SIBF)' 성과와 한계('16.6.15~19, 코엑스)

- '책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본 도서전에는 프랑스·이탈리아·중국·독일 등 총 20개국 346개의 출판사와 관련 단체 등이 참가. 특히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과 함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공동 수상한 영국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가 도서전에 참석해 눈길을 끄
-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컬처 포커스'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하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뫼소의 뒤를 이을 차세대 프랑스 작가 앙투안 로랭을 초청. '15년 주빈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스포츠라이트 컨트리'로 참여해 그림책 전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및 콘퍼런스 선보임
- 한편 이번 도서전은 준비 과정에서 주최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후원사인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출판인회의 등 3자가 이견을 보임. 출협에서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에 앞서 한국출판인회와의 통합론을 제기했으나,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성급한 통합론보다 양 단체 간 실질적인 공감대 확보"의 중요성을 밝힘(한국경제, 2016.6.9)
- 세계적인 도서전은 단순 전시 이외에도 참여 출판사 간 거래가 중심인 '출판 전문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도서전 역시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및 콘텐츠 거래 확대 방안이 필요

※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NOTE

- 지난 6월 9일,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두고 국내 양대 출판 관련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의 통합론이 제기됨. 서울국제도서전은 주최·주관 단체인 출협이 문체부로부터 5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출판인회의는 참여하지 않음. 도서전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두 단체 간 통합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실질적 공감대의 부재로 인해 보류된 상황(한국경제, 2016.6.9)
- 그러나 이번 도서전은 전체 프로그램 수 122개, 초청 강연자 수 93개로 프로그램 및 초청 강연자와 관련해 분야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림. 또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 특별전', '아름다운 책, 7개의 책상', '구텐베르크 특별전', '주제가 있는 100가지 그림책 이야기' 등 다양한 특별전시와 기획전시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 하지만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정의와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 중견 출판사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전은 전문시장으로서의 계약과 콘텐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독자, 출판사, 협회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도서전이 필요함을 강조(머니투데이, 2016.5.12)
- 도서정가제의 시행에 따라 반값 할인과 같은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작가와와의 만남', '독자 참여 프로그램' 등 이벤트성 행사들이 곳곳에 자리함. 도서전은 국가 간 출판물의 교역 촉진 활동이며, 국내 출판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상업적 순수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 간 출판사의 교류를 돕는 저작권 및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임

Hallyu Special_

한류산업 Pick

글 **고재석** 시사비즈 산업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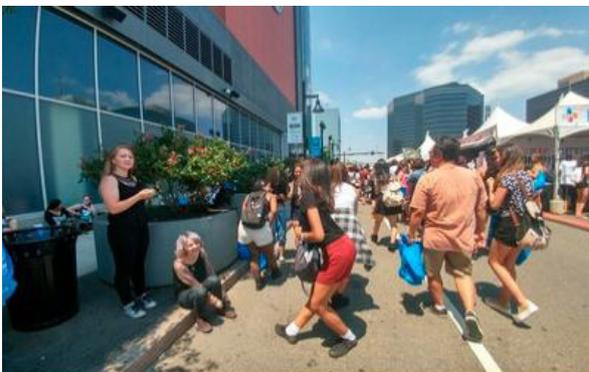
■ 케이콘 뉴욕 성황... CJ 함박웃음, 엔터+식품 부문 시너지 내...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각종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후원하고 CJ E&M이 주최·주관하는 KCON이 지난 24~25일 뉴욕에서 개최. 미국 뉴욕 푸르덴셜센터에서 진행된 KCON 2016 NY에는 이틀 연속으로 1만 좌석이 매진됨. 상품체험관을 포함하면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림. 관객들은 떡볶이, 호떡 등 한식을 맛보고 한국식 화장법도 체험함.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기관도 참여해 규모를 키움.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현지 유력 언론도 KCON 관련 보도에 나섬
- KCON은 K-POP,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와 IT, 패션, 뷰티 등 첨단·제조업을 아우르는 페스티벌. 사실상 한류와 관련된 모든 문화상품을 아우르는 박람회로 볼 수 있으며, 매년 두 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 CJ그룹이 만든 새로운 한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 이에 CJ 측은 크게 고무된 모습임. 신형관 CJ E&M 엠넷콘텐츠부문장은 현장에서 “KCON을 통해 K푸드, K뷰티, K패션 등을 글로벌 시장에 종합적으로 소개,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포부를 밝힘
- 특히 엔터와 식품을 동시에 갖춘 CJ그룹이 이번 행사를 적절히 활용한 모양새. CJ제일제당도 KCON에서 자체 한식브랜드 ‘비비고’ 활용 프로모션을 선보임. CJ제일제당에 따르면 2000인분의 시식 물량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날 LA에서 열린 KCON에도 나섬
- 일각에서는 CJ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시너지 전략이 적중했다고 평가함. 장민지 대

중문화평론가(연세대 영상학 박사)는 “가령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미국의 패턴을 보면 아이돌이나 콘서트 자체를 소비하기보다 일본이라는 기호 자체를 소비한다”며 “미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전통문화에 관심 많기 때문에 한식을 활용한 건 좋은 전략”이라고 말함

- 다만 이번 뉴욕 KCON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실제로 본 행사 자체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경우는 아님. 이미 CJ E&M은 지난 '12년 KCON 1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개최. KCON이 주로 한인 등 아시아계열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아직까지 미국 내 한류는 아시아 한류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 전초단계에 자리한다는 분석. 이에 대해 CJ 측은 동부 핵심 뉴욕과 서부 핵심 LA를 아우르며 한류 대중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
- 이 때문에 한식 등 한류 이외 문화상품을 활용한 전략이 점차 더 중요해질 전망. 다만 현재 한식 세계화가 지나치게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점. 그나마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대부분도 제과, 커피, 패스트푸드 등 비(非)한식 분야에 치우침(필자의 6월 21일 자 기사: 한식은 없고 한류만 가득한 ‘한식 세계화’ 참조)
- 한류와 한식의 장기지속이 가능한 시너지를 위해서는 한식 세계화 추진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류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 간의 보다 치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

‘KCON 2016 NY’ 행사 이모저모



행사장 밖에서 미국 소녀들이 한국 가요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장면



뉴욕 행사장 밖에 마련된 부스에서 마련된 라면컵 썰기 대회 현장



야외 특설 무대의 댄스 경연대회



다양한 행사 부스 현장

* 출처 : IT조선(2016.6.26)

■ 애플뮤직 상륙 임박 보도… “되레 국내업계 도울 것”

- 애플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상륙이 임박했다는 보도 등장. 올 여름 국내 시장 진출 목표로 현재 음원업체들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음. 애플뮤직은 현재 1500명 가입자를 확보. 거대 IT공룡이 내놓은 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하면 당장 국내 음원업체가 피해를 볼 거란 전망. 애플뮤직은 본래 아이폰의 기본 앱인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됨
- 하지만 엔터산업에 정통한 증권가 애널리스트 일부는 애플뮤직의 국내 진출을 달리 바라봄. 이들은 애플뮤직 상륙이 국내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분석.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광고기반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애플뮤직의 정책에 맞서 3개월 프로모션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는 애플뮤직/스포티파이의 유료가입자 동시 성장 및 스포티파이의 유료가입자 비중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유료가입자 시장이 대폭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
- 국내 유료음원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이 카카오에 인수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 효과 덕에 음원시장이 커지리라 예상. 하지만 아직 가시적 변화는 없는 모양새
- 로엔 주가도 정체 국면.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9만 1500원을 찍고 다음날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해 28일 현재 7만 1100원에 거래. 카카오 인수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보임

한류스타 Pick

글 정진영 아주경제 아주스타부 기자

■ ‘성폭행 논란’ JYJ 박유천, 한류 활동 ‘먹구름’

- 그룹 JYJ의 멤버이자 한류스타 박유천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여 한류문화 전체에 파장을 일으킴. 최초 고소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여성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은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 첫 고소장이 접수된 6월 10일 이후, 6월 17일 JYJ의 팬 사이트인 DC JYJ 갤러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유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냄. JYJ 멤버 가운데 박유천을 제외한 김재중, 김준수 두 사람만을 지지하겠다는 의미.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지만 성을 상품화 하는 곳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
- JYJ는 지난 2004년 데뷔해 일본에서 한류 붐을 이끈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세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결성한 그룹. ‘10년 ‘더 비기닝’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한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중국, 미국 등에서 월드와이드 쇼케이스를 진행. ‘10년 일본 오사카, 도쿄돔에서 진행한 콘서트에는 4회에 21만 명이나 되는 팬들이 모임. 일본에서 ‘10년부터 ‘14년까지 JYJ가 동원한 관객은 모두 76만 명. 그만큼 일본 내에서 JYJ가 갖는 지위는 큼
- 뿐만 아니라 이들은 ‘11년과 ‘12년 각각 유럽과 남미 투어를 진행. 스페인, 독일, 칠레, 페루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진출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한류 톱스타 그룹. 그러나 박유천의 갑작스런 명예 실추로 그동안 쌓아온 K-Pop에 대한 해외에서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
- 박유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6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과에 이모 씨와 소장을 제출한 남자 친구를 무고 및 공갈죄로 고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



라 다른 고소인들도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하겠다는 계획.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을 비롯한 네 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구체적 상황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

- 하지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류스타로서 박유천이나 소속 그룹 JYJ가 갖는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이 왔다는 게 업계의 중론. 특히 박유천은 '15년 8월에 입대해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움. JYJ 팬덤의 큰 기둥인 일본의 경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도덕성에 특히 더 엄격하기에 앞으로 JYJ의 일본 활동에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됨**

* 박유천 사건에 대한 DJD JYJ 갤러리의 입장표명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jyj&no=1825795>)

** 일본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멤버 카고 아이는 미성년자 시절 흡연하는 사진이 '06년 유포된 뒤 연예계에서 잠정 퇴출. 그룹 AKB48 멤버 미네기시 미나미는 '13년 남성 그룹 제너레이션의 멤버 시라하마 아라과 동침 스캔들에 휘말린 뒤 팬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자진 식발. 헤이세이점프의 모리모토 류타로는 '11년 미성년자 시절 흡연하는 사진이 유출돼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받음

■ SM엔터, 엑소 무단 이탈 크리스-루한-타오에 대한 법적 대응 지속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크리스, 루한, 타오에 대한 중국 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힘. SM에 따르면 크리스, 루한, 타오를 비롯해 이들과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SM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14건이 6월 24일부로 각지 관할 법원에 정식 입안됨
- 크리스, 루한, 타오는 모두 SM 소속 그룹 엑소로 데뷔. 엑소의 데뷔 당시 멤버는 12명으로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팀은 엑소K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한 팀은 엑소M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각각 활동함. 크리스는 엑소M의 리더를 맡을 정도로 데뷔 당시 주력 멤버
- 크리스는 엑소의 정규 1집 'XOXO' 활동을 마무리한 뒤 '14년 5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이후 중국에서 영화 '노포아', '작적(爵跡)' 등을 촬영하며 배우로 활동 중. 루한 역시 엑소M 멤버였으나 크리스와 같은 해 그룹에서 이탈한 뒤 '14년 10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타오는 지난해 3월 발매된 엑소의 정규 2집 '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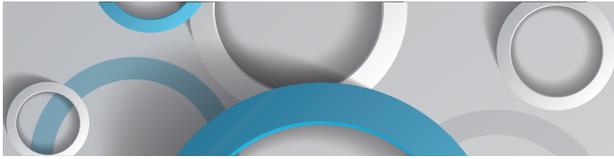


소터스' 활동 이후 부상 및 개인 기획사 설립 문제, 소속사와 친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그룹에서 이탈함. 이후 '15년 8월 크리스, 루한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냄

- 중국이 한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멤버를 영입하는 건 SM을 비롯한 국내 여러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필수 전략 중 하나. 하지만 크리스, 루한, 타오를 비롯한 일부 중국인 멤버들이 무단으로 그룹을 이탈해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
- 멤버 개인보다 그룹 자체에 대한 선호가 큰 국내 팬덤의 특성에 미뤄봤을 때 멤버 이탈은 그룹 존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일. SM이 엑소를 무단 이탈한 세 멤버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인 멤버 이탈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
- SM은 6월 28일 “한국 법원에 일방적인 소를 제기하고 이탈한 크리스, 루한, 타오 3인은 판결이 있기 전까지 SM 소속 아티스트이며 법원의 정식 판결 전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 이번 소송에 이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도 법률적 조치들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 아울러 중국국가판권국의 정책, 중국출판협회의 공약, 한중저작권포럼의 양해각서 계약준수정신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힘**

* '12년 데뷔한 2인조 그룹 테이스티 역시 '15년 7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국내 활동 중단.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테이스티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인 테이스티의 청구를 기각,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 슈퍼주니어 한경 역시 '09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 '10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한경)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SM이 항소를 결정. 이후 한경이 합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법적 다툼은 종결. 한경은 SM과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을 인정함과 함께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중국국가판권국은 '15년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 저작물 무단 배포금지에 관한 통지>를 공포.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또한 같은 해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 역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한중 문화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제12차 한중저작권 포럼에서는 양국이 음악 분야 한중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주요 의제로 계약준수정신에 대해 논의



한류예술 Pick

글 박경린 전시기획자

■ 김윤철 작가, 콜라이드 국제상(COLLIDE International Award)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융합에 기여

- 지난 6월 15일, 작가 김윤철 씨가 세계적인 과학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수여하는 ‘콜라이드 국제상(COLLIDE International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됨. 이 상은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융합에 기여한 작가에게 세련에 머물며 과학과 접목한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
- 온라인 세상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자 개념인 월드와이드웹(WWW)을 개발하고 힉스 입자를 발견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련은 매년 작가 1명을 선정, CERN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
- 세련은 지난 ‘11년부터 ‘14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와 함께 레지던시 프로그램** Prix Ars Electronica Collide@CERN을 운영했으며, ‘15년에는 COLLIDE Ars Electronica로 이름을 바꾸어 1년 연장 운영. 이번 어워즈에서는 FACTArts@CERN과 FACT(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재단이 파트너사로 공동으로 선정
- 베를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윤철 작가는 유체역학과 메타물질(초자연물질) 등 질료에 천착하는 예술가로 알려졌으며,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초학제 역연구에 관여해 옴. 그는 향후 3개월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련과 영국 리버풀 소재 뉴미디어아트센터인 팩트(FACT)에 머물며 각 기관 소속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리버풀대 물리학과 교수들과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
- 초학제 연구 및 작업 활동에 대한 국내외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와 예술가들 간 협업 모델의 협소, 언어 및 실천 방식의 차이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 그러나



김윤철 작가의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도가 높아 71개국에서 지원한 총 904명의 작가와 경쟁한 끝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향후 행보가 주목됨

- 세계적인 과학기관으로서 세련이 가진 위상과 위에 대한 904: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김윤철 작가의 성공 소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초학제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 될 것으로 기대

*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국경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입자가속기 연구소, 순수 기초 원자핵 연구에 관한 유럽 국가 간 협동연구, 여러 실험실과 연구소 과학자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 공동연구 조식과 지원, 기술이전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확산, 연구자들의 최신 활동 지원들을 목표로 함. 1954년 설립

** 레지던시 프로그램(residence program) :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작업을 하거나 문화체험, 전시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Inside Hallyu_

한류-산업

■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제5회 KOFIC 글로벌 포럼 개최'('16.6.29,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국내외 주요 영화 및 영상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세훈 영진위원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박영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정진우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이장호 서울영상위원회위원장,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이춘연 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차원천 롯데엔터테인먼트인먼트대표 등 다수 관계자 300여 명 참석
- 'VR시네마 :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 'ICT 시대,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 배급 전략' 주제 발표 및 토론, VR 기기 시연 등 진행. 한·중 공동제작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영화산업의 관행과 실무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 공유, 콘텐츠 작품성·다양성·기획력·배급 전략 모색의 장 마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KT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동·남미에 한류 수출기지 구축('16.6.28)

- 한류 잠재 유망시장인 중동, 남미지역 수출기지 구축을 위해 '16년 3월 아랍에미리트, 6월 브라질 현지 한국문화원에 마케터를 파견하고 공식적인 업무 시작
- 아랍에미리트·브라질 거점 마케터는 각각 중동(이란 등)과 남미를 대상으로 한류 알리기에 힘쓸 예정. 특히 브라질은 세계 7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콘텐츠 시장은 '15년 기준 세계 9위



(4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구 2억 명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19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지역 중 하나

- 한편 중동은 34세 이하 인구 비중이 약 70%대로 젊은 세대가 많으며, 문화콘텐츠 수요 가능성이 높아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시장. UAE 마케터는 중동 문화의 중심지이자 콘텐츠 비즈니스 관문인 아랍에미리트를 근거지로 해 향후 이란을 비롯한 중동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담당할 예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수출지원센터는 베이징, 도쿄, LA, 런던, 아부다비, 상파울루 총 6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6년 하반기에는 '서역(西域) 한류' 확산을 위해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센터 개소 예정

한류-관광

■ 창원시에 'SM복합문화타운' 조성^(16.6.21)

- 'SMTOWN 코엑스 아티움'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조성되는 'SM복합문화타운'에는 홀로그램 공연장, 체험 스튜디오, 컨벤션 시설, 상업 시설, 한류스타 아이템을 활용한 테마형 호텔 등이 조성될 예정
- 이를 위해 총사업비 약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창원시는 시유지(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터를 제공. 특히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 중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됨
- '11년부터 시작된 K-Pop 월드페스티벌 연계 오디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운영될 계획이며, 일일 800명, 연간 30만 명 방문 예상. 단순 유람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의 변화 트렌드를 반영, 교육·학습 등 사회적 서비스가 결합된 한류 체험형 관광 활성화 기대



* 전체면적 2만 4520㎡, 지하 4층~지상 9층, 2020년 초 개관 예정

** 민간투자 컨소시엄 '리얼티플러스'가 건설비 1000억 원을 투자해 준공 후 강원시에 기부할 계획, 이후 민간투자자와 SM엔터테인먼트가 200억여 원을 공동 투자해 문화복합타운 운영회사 법인 설립한 뒤 최대 20년 동안 운영할 예정

■ 강원 관광 모바일 시스템 구축, 입국에서 출국까지 스마트하게 즐긴다(*16.6.29)

- 문화체육관광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와 함께 체계적인 강원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예산 8억 8천8백만 원, 국고 50%, 지자체 50%)
- 이에 강원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4500개에 대한 전산자료(DB)를 구축하고 평창·강릉·정선·춘천·원주·양양 6개 시군에 2100개의 비콘을 설치,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콘 시스템*을 구축
- 올림픽 경기 관람 이동 경로에 따라 입국 전·후, 경기 관람·관광·출국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강원관광 모바일앱 시스템' 개발, '17년까지 관광안내센터 14개소(평창 8개소, 강릉 5개소, 정선 1개소) 설치
- 강원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올림픽 개최 도시 방문객의 이동경로와 선호 관광지, 소비 형태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회 이후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

* 비콘 시스템 : 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 반경 60~70m 범위 내의 사용자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장소 안내, 모바일 결제 등)



한류-문화

■ 중국 8개 매체, 한류문화콘텐츠·창조경제 취재차 방한(*16.6.19~25)

-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중국 주요 언론인 초청, 중국 국가통신사 소속 종합 뉴스포털 사이트 신화망을 비롯해 일간지 인민일보, 환구시보, 봉황TV, 중국청년보, 중국경제망, 전강만보, 항저우일보 등 8곳 방한
-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인 문화창조 벤처단지·융합센터·아카데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 인터뷰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 한보탄광, 정선 삼탄아트마인 등 취재, '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견학,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낙안읍성, 양양국제공항 방문
- 이들이 취재한 내용은 중국서 한국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로 '16년 7월부터 보도될 예정, 한중 교류 발전 및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최대 규모 책잔치,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SIBF)' 성과와 한계(*16.6.15~19, 코엑스)

- '책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본 도서전에는 프랑스·이탈리아·중국·독일 등 총 20개국 346개의 출판사와 관련 단체 등이 참가. 특히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과 함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공동 수상한 영국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가 도서전에 참석해 눈길을 끄
-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컬처 포커스'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하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뫼소의 뒤를 이을 차세대 프랑스 작가 앙투안 로랭을 초청. '15년 주빈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스포츠라이트 컨트리'로 참여해 그림책 전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및 콘퍼런스 선보임
- 한편 이번 도서전은 준비 과정에서 주최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후원사인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출판인회의 등 3자가 이견을 보임. 출협에서

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에 앞서 한국출판인회와의 통합론을 제기했으나,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성급한 통합론보다 양 단체 간 실질적인 공감대 확보”의 중요성을 밝힘(한국경제, 2016.6.9)

- 세계적인 도서전은 단순 전시 이외에도 참여 출판사 간 거래가 중심인 ‘출판 전문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도서전 역시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및 콘텐츠 거래 확대 방안이 필요

※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NOTE

- 지난 6월 9일,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두고 국내 양대 출판 관련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의 통합론이 제기됨. 서울국제도서전은 주최·주관 단체인 출협이 문체부로부터 5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출판인회의는 참여하지 않음. 도서전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두 단체 간 통합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실질적 공감대의 부재로 인해 보류된 상황(한국경제, 2016.6.9)
- 그러나 이번 도서전은 전체 프로그램 수 122개, 초청 강연자 수 93개로 프로그램 및 초청 강연자와 관련해 분야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림. 또한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 특별전’, ‘아름다운 책, 7개의 책상’, ‘구텐베르크 특별전’, ‘주제가 있는 100가지 그림책 이야기’ 등 다양한 특별전시와 기획전시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 하지만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정의와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 중견 출판사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전은 전문시장으로서의 계약과 콘텐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독자, 출판사, 협회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도서전이 필요함을 강조(머니투데이, 2016.5.12)
- 도서정가제의 시행에 따라 반값 할인과 같은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작가와의 만남’, ‘독자 참여 프로그램’ 등 이벤트성 행사들이 곳곳에 자리함. 도서전은 국가 간 출판물의 교역 촉진 활동이며, 국내 출판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상업적 순수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 간 출판사의 교류를 돕는 저작권 및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임

Global Hallyu_

아시아

■ 이준익 감독 <사도>, 이은희 감독 <순정> 일본 개봉^(16.6.4/6.11)

- 한국 영화 전문사이트 '시네마코리아'는 <사도>의 일본 영화 타이틀인 <왕의 운명-역사를 바꾼 8일간>을 소개하면서, "이준익 감독의 독특한 부자 진혼가"라는 제목으로 리뷰기사 게재

작품명	감독 및 출연	내용
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 이준익 • 출연 : 송강호, 유아인 등 	조선 21대왕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가족사
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 이은희 • 출연 : 디오(EXO), 김소현 등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23년 전 첫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되는 음악비행

■ 중국 외국방송 판권 규제 강화, 높아지는 한류 수출 문턱 vs 한류콘텐츠 위기 아니다^(16.6.16)

- 중국이 또 한 번 외국 방송콘텐츠 규제에 전격적으로 나섬. 해외 드라마 사전심사제에 이어 해외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는 중국 전역의 위성방송국은 방영 2개월 전 각 지방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16년 7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위성방송사들은 황금시간대(오후 7시 30분~10시 30분)에 외국 판권을 사들인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 더불어 중국 방송사와 외국기관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을 주 제작자로 기용해 만든 콘텐츠 등 중국이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그램까지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힘



- 지방 위성TV에 한정된 본 규제가 향후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부문까지 확장될 수 있어 위협적일 수 있다(한국경제, '16.6.24)는 의견과 함께 중국 자본이 1대 주주인 제작사들은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한류콘텐츠의 위기는 아니라는 견해(스포츠월드, '16.6.22)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
-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국내 제작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은 분명. 그러나 중국 내 높은 한류 콘텐츠 수요와 함께 대부분의 인기 콘텐츠들이 중국 방송 채널보다 유쿠, 아이치이 등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제휴해 '우회진출' 형식을 띠고 있어 본 규제를 한류의 위기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이민호, '2016 웨이보 영화의 밤'에서 '아시아영화선봉인물' 수상^(16.6.13)

- 개봉을 앞둔 이민호의 첫 중국 진출영화 <바운티 헌터스>*와 함께 이민호가 한류스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인으로 성장했음을 증명
- 제5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중국 측 시상자로 나섰던 오수파를 비롯해 저우쑤, 동려아, 장우기 등 현지 톱스타 대거 참석, 온라인 1억 명, 오프라인 1천 명 팬들이 축제에 함께함

* 바운티헌터스 : 한국·중국·홍콩·태국 등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현상급 사냥꾼의 코믹 액션 블록버스터로 360억 원의 제작비 투입. (감독) 신태라 (제작)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

■ 대만 언론이 선정한 '16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K-DRAMA 소개'^(16.6.16)

- '16년 6월 16일부터 대만 케이블 방송사 EBS(東森戲劇台)를 통해 현지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뿐만 아니라 tvN <또, 오해영>·<싸우자 귀신아>, SBS <닥터스>·<보보경심:려>·<사임당1 빛의 일기>, KBS2 <뷰티풀 마인드>·<함부로 애틋하게> 등 소개
- 송중기, 지난 6월 25일 대만 팬미팅을 통해 4천여 명에 달하는 팬들과 만난 바 있어 현지에서의 한국 드라마 및 배우 인기 청신호. 대만 언론이 선정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김우빈, 수지, 이준기, 아이유 등 톱스타들이 출연해 현지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음



■ 한국식 ‘차문화(茶禮)’ 모임 활발(*16.6.19,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한식당 아리아)

- 한식당에서 근무하는 다리야 디바예바(Д арьяДибаева)씨, 래퍼 막스 한(М акс Хан) 씨 주도 하에 13명의 현지인 다례 체험
- 러시아의 경우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인트턴트 티를 주로 음용하나, 시골 방문 시 사모바르(samovar·러시아 전통 주전자)를 사용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음. 한국식 차문화에 관심이 높은 다리야 씨는 “한국산 차는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어 중국산 차보다 귀하며, 한국의 보성이 녹차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힘
- 중국차에 대한 정보는 현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도서도 다양한 반면, 한국 차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한국적 전통이 깊이 배어 있는 한국 차문화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홍보 방안 모색 필요

■ 드라마 <닥터스>, 대만 최고 수출가 경신(*16.6.28)

- 중국 SNS 웨이보 최다 팔로어(1137만 명)를 보유한 박신혜의 인기에 힘입어 대만·중국·일본·홍콩·인도네시아·태국 등에 선판매 됨. 특히 대만에는 회당 4만 달러(한화 약 4611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돼 역대 대만에 수출된 한류 드라마 중 최고 수준을 기록
- 박신혜가 출연한 한국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이 대만에 소개되고, 대만 FTV 드라마 <선풍관가>의 주연을 맡는 등 현지화 전략을 구사한 결과
- 2015 한류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한류 대중화단계에서 한류 확산단계로 후퇴. 이번 드라마 수출 호재를 계기로 대만 내 한류가 재점화 될 수 있을지 기대

미주

■ LA한국문화원, 우봉 이매방 유작 공연(*16.6.3, LA문화원 3층 아리홀)

- LA한국문화원과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남가주 지회가 함께 준비한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의 세 번째 무대
- 네 살배기 재롱둥이 춤꾼에서 국무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우봉 이매방*이 걸었던 굴곡진 삶의 회로애락을 제자 김묘선과 한국 중견무용가,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 재현
- 승천무, 살풀이춤, 대감놀이, 기원무, 장고무, 입춤, 사풍정감, 초립동, 승무, 소고무 등 10편의 작품 선보임
- 현지인 쿠우 마즈, 지네트 릭슨, “한국 문화만큼 풍성한 색을 지닌 것도 흔치 않다”며 “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승무’도 여러 번 접했지만, 이번 공연은 더 슬프면서도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힘

* 우봉 이매방 :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중 유일하게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두 종목을 지정받은 명인. ‘91년부터 ‘우리 춤의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남가주 지회 설립, 강습 및 공연 통해 LA 무용가들과 교류하며 한·미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주역

■ 할리우드에서 만난 한국 과자(*16.6.17)

- 할리우드 대로에 위치한 종합스토어 월그린(Walgreens)에서 꽃게스낵, 새우스낵, 초코퍼프 바나나·멜론 맛, 구이김스낵 등 다양한 한국 과자 판매
- 월그린 매니저 헤수스 씨, “한국 과자를 구매한 이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과자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 판매가 잘 되는 편”이라고 밝힘
- 남가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 스타트업 스낵 피버(Snack Fever)는 한 달 회비 약 11달러에 한국 과자들을 큐레이션해 배달해 주는 업체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현지인들의 한국 과자 선호 이유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에 있음



■ '2016 한국음식 경연대회(CONCURSO DE GASTRONOMIA COREANA 2016)' 개최

(16.6.19, 상파울루 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앙(Juan Rojas) 인터콘티넨탈호텔 셰프, 한인부인회 회장, 한국 문화원 한식강의 강사, 손정수 반찬닷컴 대표, 브라질 한식 홍보운동대표 심사위원으로 위촉. 브라질 전역의 참가자들이 상파울루로 모여들었으며, 최종 우승자에게 3000헤알(한화 약 100만 원) 상금 수여 및 한국 대회 참가 기회 제공
-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주요 인사들이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 부대행사로 한국 전통 춤 공연, 퀴즈코너 진행

■ 미국 최대 국제식품박람회 '팬시푸드 2016'*서 한국관 성황(16.6.27, 제이콥 재밋 컨벤션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막 전일 행사에서 한국관인 '케이-팝업 식당'을 열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와 요리를 미국 시장에 선보임
- 뉴욕 요리전문학교의 하나인 '내추럴 구어메 인스티튜트'의 교수 제이 와인스타인 셰프가 한국 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 바이어들에게 소개
- 와인스타인 셰프는 "한국 음식은 식재료가 훌륭하기 때문에 건강식이 대세를 이루는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 삼계탕은 미국인들이 즐기는 치킨수프와 비슷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요리"라고 소개
- 특히 본 행사에서는 미국 동부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120명이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을 구성해 한국 식품 홍보에 나섬
- '16년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15년 8억 6000만 달러 대비 1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알로에 음료, 고추장 등 소스류. 건강식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현지 관심 증가에 따라 향후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인의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 기대

* 팬시푸드쇼(Fancy Food Show) : '16년 62년을 맞이한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 올해 4만 6천 명의 식품 전문가 참여뿐만 아니라, 약 2천500개 업체가 18만 개 제품을 선보임



■ 박보영·지성, 해외 한류팬이 선정한 2016 최고의 배우(*16.6.27)

- 북미권 한류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 드라마피버*, '제4회 드라마피버 어워즈' 개최.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과 <킬미 힐미>의 지성, 베스트 배우상 수상
- SBS <런닝맨>이 '15년도에 이어 '베스트 버라이어티'상을 수상했으며, 빅뱅의 탑(최승현)은 영화 '타짜2'(베스트 영화상), 웹드라마 '시크릿메시지'(베스트 SNS드라마상), 빅뱅 2015 투어(베스트 케이팝상)로 3관왕 차지
- 기타 부문별 수상자(수상작)로 '베스트 멜로드라마' 부문의 <힐러>, '베스트 조연' 부문 최시원(<그녀는 예뻤다>), '베스트 SNS' 부문 드라마 <시크릿 메시지> 등 선정

*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이용자의 약 65%가 비아시아인이며, 약 2000만 명의 월간 시청자를 보유. '09년 한인 1.5세 설립. www.dramafever.com

유럽

■ 폴란드 'Korea Festival 2016' 개최(*16.6.11, 바르샤바 아그로콜라 공원)

- 'Feel, Taste, Discover'라는 주제로 K-Pop·태권도·사물놀이·한복·한식·뷰티·한국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공간 마련, 현지인 약 1만 명 참석
- 주요 공연 프로그램인 설장구, 쇼팽 음대 타악기 합주 및 난타 공연 현지 인기.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는 "폴란드인들에게 낯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이미 외국에서 인기를 얻은 난타 공연에 대해 자세히 소개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페이스북에 “매년 그렇듯 코리아 페스티벌은 너무 멋지다, 특히 난타 공연이 좋았다”며 다수 현지인 호평

■ **다수 한국 영화 프랑스 개봉**(’16.6.11, 바르샤바 아그르콜라 공원)

- 프랑스 노경태 감독 <블랙스톤>, <하이힐>, <부산행> 각각 7~8월 중 프랑스 개봉 예정
- <블랙스톤>은 프랑스 Neon Productions과 한국의 제작사 Teddy Bear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며, 현지 배급사는 Outplay Films임. 또한 <블랙스톤>은 영화진흥위원회 ‘Ko-Production in Paris’ 행사의 참가작으로, 제44회 로테르담영화제 ‘스펙트럼 섹션’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바 있음

작품명	감독 및 출연	내용
블랙스톤 (Black Stone)	• 감독 : 노경태 • 출연 : 원태희, 백현주 등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HIV에 감염된 혼혈 입양아가 탈영 후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하이힐 (Highheel)	• 감독 : 장진 • 출연 : 차승원, 오정세 등	완벽한 남자의 조건을 모두 갖췄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긴 채 살아온 강력계 형사 ‘지옥’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
부산행 (Train To Busan)	• 감독 : 연상호 • 출연 : 공유, 정유미 등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재난 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

■ **아제르바이잔 시장에서 약진하는 한국 화장품**(’16.6.29, KOTRA)

- 한국 화장품은 아제르바이잔 시장 진입단계로 현재 점유율은 미미한 상태. 그러나 현지 소비 수요의 95% 이상을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에 따라 한국 인지도가 상승 중이어서 한국 화장품 소비시장은 확대 중
- 한국 제품 전용 판매샵은 바쿠 시내 변화가에 2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곧 3번째 매장을 오픈할 예정. 토리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샤 등 기존 진출 브랜드뿐만 아니라 시크릿키, 더 샘, 에뛰드 하우스 등 현지 진출

- 메이크업 스틱,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색조화장품과 함께 안티에이징 제품, 마스크팩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임. 향후 미용 잡지 광고, 할인카드 제공 등을 통한 현지 소비자 유인책 필요

* 한국 화장품, 아제르바이잔 시장에서 선전

- 현지 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는 유럽 유명제품에 비해 약하나,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한류 영향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기가 회복될 경우 시장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판단
- 인구 960만 명,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아제르바이잔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침체가 지속. 그러나 자국 화장품 제조업체가 매우 부족해 현지 수요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인 Namu Korean cosmetics사는 바쿠 시내 번화가에 2개의 판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번째 판매장 오픈을 계획 중에 있음. Namu사는 기존의 Tony Moly, Nature Republic, The Face shop, Missha 등의 브랜드 이외에 Secret Key, the Saem, Etude House 등 브랜드를 신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도입
- 토니모리 전문매장은 '15년에 본격 진출했으며, '드림마트'라는 한국 제품 판매점에서도 화장품 판매를 시작. 토리모리 판매상에 따르면 메이크업 스틱,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색조화장품의 인기가 높으며, 안티에이징 제품, Face 마스크 등 스킨케어 제품도 선호도가 높음
- 한국 화장품의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미용 전문잡지 광고, 할인카드(discount card)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

토니모리 전문 매장



* 사진제공 : KOTRA 글로벌원도우(2016.6.29. 이명구 바쿠무역관)